**답안1.**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인텔이 기기가 스마트해지는 '사물인터넷(IoT)' 시장 공략에 나섰으며, 11세대 코어 프로세서, 아톰 x6000E 시리즈, 펜티엄, 셀러론 N 및 J시리즈 등 IoT 전용 프로세서를 대거 출시했다.

인텔은 이 반도체 수요가 급증해 **오는 2024년까지 650억달러(약 76조원) 규모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텔의 진입영역은 하기와 같다.

• **장치 및 게이트웨이**. 엣지에서 장치와 센서가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물리적으로 엣지 장치와 클라우드 사이에 위치하는 게이트웨이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처리하고 엣지에서 데이터를 제어합니다. 단순한 필터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게이트웨이는 엣지 컴퓨팅을 이용하여 정보를 조치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이트웨이는 액추에이터로 명령을 다시 보내 실시간 폐쇄 루프

제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 **엣지 및 클라우드 관리**. 장치, 보안 및 첨단 데이터 관리는 최종 사용자에게 대규모 IoT 시스템을 관리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Wind River Edge Management System\*은 장치 구성, 파일 전송, 데이터 캡처 및 규칙 기반 데이터 분석과 응답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클라우드 연결을 제공합니다.

• **서비스 생성 및 API**. 인텔 IoT 플랫폼 사용자는 Intel® Mashery™ API 관리 도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PI는 내부적으로 공유하거나 타사 개발자와 공유할 수 있어 배포된 IoT 솔루션에 기초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인텔은 Intel® Galileo 보드 및 Intel® Edison 모듈과 더불어 Intel® IoT Gateway 개발 키트 시리즈를 포함하도록 IoT 개발자 키트에 대한 클라우드 분석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엣지에서의 컴퓨팅과 클라우드 분석의 결합으로 IoT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트렌드와 비정상적 상황을 감지하고 실시간 통찰력을 확보하며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종합적 보안**. 인텔 IoT 플랫폼은 변경할 수 없는 하드웨어 식별 ID, 보안 부팅, 연결 장치 에이전트 화이트리스트,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데이터 보호 및 정책 관리를 제공하는 외에도 엣지부터 클라우드까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보안의 긴말한 통합을 제공합니다.

**답안2.**

인텔은 엔드 투 엔드 전략에 따라 센서에서 데이터 센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클라이언트와의

협력을 구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액센츄어, 부즈 앨런 앤드 해밀턴, 캡제미니, 델, HCL 테

크놀로지스, NTT 데이터, SAP 데이터,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 위프로 등의 글로벌 시스템통

합 업체들과 협력을 구축했다. 또한 구글, 삼성, IBM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사물인터넷

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솔루션과 제품들을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각 기업이

개발한 솔루션들의 호환성과 연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OCF, IIC등의 기구에 참여하고, 함께 사

물인터넷 기술 표준화를 논의하고 있다.